

# 용사의 귀환

남선정

햇살 좋은 날이었다. 아침 녘에 내린 소나기로 호찌민의 하늘은 제법 맑고 드높았다. 나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말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뜨거운 햇볕에 눈이 절로 찡그려졌다. 희끗희끗 올라온 새치가 작렬하는 햇빛을 받아 갈치 비늘처럼 번뜩거렸다. 얼마만의 해외여행인가. 한국의 추운 겨울을 벗어나 따뜻한 이곳으로 휴가 오길 잘했어.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렇게 이국에서의 휴가가 가져다주는 한가로움을 만끽하고 있을 즈음,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렸다. 핸드폰 화면에 복지팀 박 주무관의 직통번호가 떴다. 직장이었다. 무슨 일인 걸까. 그는 내가 휴가로 베트남 여행 중이라는 것을, 내일이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터인데... 모레 아침이 되면 센터로 출근하는 나를 기다리지 못해 굳이 전화를 건 까닭은 뭘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통화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박 주무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주무관님, 지금 병원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상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아침 녘에 약을 건네주려 병실에 들른 간호사가 발견한 모양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가 가만, 병원은 다 뭐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겨를도 없이 가슴이 아려왔다. 부서를 옮기게 되었다고, 더는 복지과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사차 댁에 들렀을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당시 어르신이 오랫동안 앓아왔던 지병이 쉬 낫질 않는다고 하소연하신 게 아주 빈 말은 아니었나보다 싶었다. 그건 그렇고, 대체 병원은 언제 가셨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계속 ARS(자동 안부콜)에 응답이 없으셔서 댁에 갔더니 너무 아프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 병원에 모셔다드렸거든요. 며칠 됐는데...

나는 그렇게 말끝을 흐리던 박 주무관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상상이 되었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상호 어르신은 내가 작년 여름까지 일했던 복지과 모바일 안심케어 대상자 중의 한 분이었다. 지난가을부터 대민 민원팀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어 내가 여태 맡아왔던 그 임무는 박 주무관이 인계받았다. 그 후로도 나는 어르신의 안부를 간간이 전해 들곤 했다. 사실, 내가 모처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감행하게 된 계기도 그의 옛 추억 때문이었다. 전쟁터였지만 실제로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라 말하던 어르신이 지나간 날들을 회상이라도 하듯 지그시 눈을 감고 열린 미소를 지었던 그때, 나는 다음 휴가지를 호찌민으로 정해버렸다. 그러나 그날이 그를 빈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좀 전에 영안실로 모셨다고, 보훈처에서 장례를 담당하는 분한테서 연락 왔어요. 모레 새벽이 발인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주무관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갈 테니 그곳의 위치를 톡으로 보내 달라고 하자 그는 그러겠노라고 답했다. 박 주무관은 내게 따뜻한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는지 한층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지만, 밤에 임종을 맞이한 모양이라고. 그래도 댁

에 혼자 계실 때 돌아가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거죠. 아침에 발견했을 때, 꼭 달콤한 잠을 자는 사람마냥 편안한 얼굴이셨다고, 간호사가 알려 주었대요.

편안한 표정?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 어르신은 월남에 다녀온 후부터 심장질환을 오래 앓아 왔다. 지속적인 약 복용에도 종종 발생하는 통증은 어찌 피할 길이 없다고 가끔 내게 장탄식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어르신이 편안히 생을 마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라도 억지로 해야 마음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았다. 그때,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낮게 읊조리던 어르신의 음성이 귓가를 울렸다.

본시, 인간의 생사라는 것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지.

그 말이 생각나자 나는 상호 어르신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때는 바야흐로 추운 겨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많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주무관으로 첫 발령을 받은 나는 관내 보훈 가정의 생활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상호 어르신을 처음 대면하게 된 것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될 즈음이었다. 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온 월남 전 참전용사였던 그는 오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바깥출입을 잘 하지 않게 되었다. 어르신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자택에서 기거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관할구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찾아가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 임무를 맡게 되면서 복지센터에서는 내가, 보건소에서는 김 간호사가, 이렇게 2인 1조가 되어 보훈 대상자들을 방문해 복지 건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전임자에게 들은 바로는 지자체 도움에 어르신의 반응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서비스 또한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민원인을 만날 경우가 있는데, 상호 어르신이 그런 분이었다고, 그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그간의 고충처럼 덧붙여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호 어르신이 벽창호 같은 분이라고 지레짐작했고 오늘 방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복병이 생겼다. 그건 바로 김 간호사와의 동행이었다. 그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대방에게 뼈 때리는 직언을 서슴지 않아 보건소 옆 건물인 행정복지센터에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와 함께 방문 서비스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여간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설마 처음 만난 노인분에게 독설을 날리진 않겠지. 어르신의 집으로 향하던 내내 나는 걱정을 잠재우려 애썼다. 어르신은 동네 재래시장 뒤편 막다른 골목을 따라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맨 안쪽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앞 건물이 가로막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내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어두웠고 한눈에 봐도 세간살이가 단출했다. 부엌 한구석에 놓인 세탁기와 소형 냉장고 외엔 큰살림이 없었다. 그건 3단 월목 서랍장과 그 위에 놓인 가지런한 침구가 다인 방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집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었다. 어르신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김 간호사가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왔다. 험한 공간을 마주한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당황한 눈빛을 띠었다. 그녀는 한동안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나는 그녀가 어르신에게 괜한 말이라도 꺼낼까 봐 신경이 쓰였다. 그런 김새를 눈치라도 챘는지 어르신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그러게, 바쁜 선생님들이 이리 누추한 곳을 다 찾아오시고. 이 늙은이가 사는 게 좀 그렇죠? 나이가 많아 거추장스러운 것도 싫거니와 인제 삶을 차근차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살림을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산다오.

어르신이 끝말을 흐리며 어두운 낯빛을 드러내자 방은 순식간에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걸까, 아니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던 걸까. 서먹한 분위기가 싫어서였으리라. 내 입에서 뜬금없는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저도 아주 간소하게 살아요. 집에 그 흔하디흔한 소파도 없는데요, 뭐!

라며 공연스레 너스레를 떨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최근 힘들게 발품을 팔아 산 갈색 가죽 소파가 놓인 거실 풍경이 펼쳐졌다. 김 간호사는 그 말이 진짜냐고 묻고 싶은 듯한 눈으로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가져온 구급상자를 열었다. 거기서 꺼낸 커프를 어르신의 팔에 둘러 혈압을 재고 난 뒤 수첩에다 기록하면서 물었다.

어르신, 혈압이 높으시네요. 혹시 다른 약 복용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 약을 먹어요. 병원서 허혈 심장질환이라고.

네, 어르신. 혈압약은 따로 복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구석에 놓인 약봉지 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쪽을 쳐다보던 김 간호사가 이번에는 혈당측정기를 꺼내자 어르신이 말했다.

당뇨는 없어요. 저번 병원에 갔을 때도 당뇨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측정해 볼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없던 병도 잘 생기니까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을 툭툭 내뱉는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진땀이 뺨뺨 났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던 나는 그저 침묵을 지킨 채 멀거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런 내 시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채혈기와 기록지가 끼인 측정기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어르신의 손가락을 문질렀다. 조금 뒤 알코올이 다 마르자 그녀는 손가락에 올려진 채혈기 버튼을 눌렀다. 피가 나옴과 동시에 어르신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니 짧은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야! 아이고, 그 바늘이 보기보다 아프네!

어르신, 월남전에 두 번이나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강인하신 분이 이렇게나 조그마한 바늘이 아프신 거예요? 엄살이 장난 아니시네요!

아, 결국…. 내 기준에선 그녀가 어르신에게 사용한 말투가 다소 톱상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어르신은 김 간호사에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어르신의 기분을 살폈다. 그러나 내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기분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라 생각했다. 김 간호사는 혈압이 높으니 음식을 싱겁게 드시라는 조언과 함께 운동이 어려우면 가까운 곳으로의 산책을 권유하는 말을 끝으로 방문의 소임을 마쳤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내가 어르신에게 모바일 안심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은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로 내 말을 계속 듣기만 했다. 그런 그의 표정을 금방 눈치챈 김 간호사가 갑자기 말을 중간에 잘랐다.

어르신,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공짜’라는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지만, 어르신은 금세 낯빛이 바뀌어 옆에 붙어 앉더니 내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내가 폰에다 앱을 설정하는 동안에도 어르신은 이거 진짜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냐고 그녀에게 재차 물었고, 김 간호사는 그러하니 안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렇게 방안에 활동량 감지기까지 설치하고 집에서 나와 골목을 빠져나오던 길이었다. 그때 김 간호사가 단호한 말투로 말을 꺼냈다.

최 주무관님,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한테는 단도직입적으로 요점만 짚어줘야 일 처리가 빠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특히 돈, 비용에 대해선 더더욱이요. 알겠죠?

조언 같은 그녀의 말에 나는 동의한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나 사이에서 무

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는 말머리를 돌려 다른 걸 물어왔다.

그건 그렇고, 김상호 어르신 고엽제 수당은 받고 계신 건가요?

그 물음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 가정의 수당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내게서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나도 멈춰 섰다. 그녀는 몸을 살짝 옆으로 비틀어 나를 뻘뻘 쳐다보았다. 그런 그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몇 해 전 보훈처에서 허혈 심장질환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했으니 심사만 통과된다면야 고엽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어르신,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무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 간호사는 어르신의 환경이 다소 궁핍해 보이는 이유가 순전히 돈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걸까. 나도 어르신은 대체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시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들긴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소파에 앉아 보훈처 웹사이트에 접속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시간에 어르신의 활동량 감지 알람이 울렸다. 나는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여러 번 전화해도 매한가지였다. 혹시 쓰러져 정신을 잃으신 게 아닌가 싶어 몹시 불안했던 나는 응급관리 요원과 어르신의 집으로 출동했다. 가는 도중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당도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저녁 6시가 되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119를 부르려던 찰나, 어르신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둘러 전화를 받은 나는 다급히 외쳤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난 괜찮소. 전화를 제때 못 받아서 진짜 미안해요. 전화 온 걸 이제 보았소.

분명,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어르신의 침울한 표정이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졌다. 나는 지금 댁 앞에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고 나서 곧장 물었다. 무슨 일이 생기신 거냐고. 그러자 그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꼭 다녀올 데가 있어 집을 비우게 되었노라고 했다. 나는 어르신을 보고 가는 것이 안심될 것 같아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요. 지금 가는 중이니 도착해서 얘기합세!

전화를 끊고 응급관리 요원에게는 그냥 퇴근해도 될 것 같다고 하자 그는 혼자서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만일 어르신이 아프신 거면 근처 119안전센터로 연락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그를 안심시켜 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나는 어르신이 택시에서 내려 골목 초입부터 느린 걸음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부리나케 뛰어나갔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나는 어르신을 부축하고 걸었다.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리 쉬었다. 그러다 뭔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가만, 선생님은 어떤 일로 여길 찾아왔소? 오늘은 방문하는 날도 아닌데...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일전에 활동 감지기를 설치해 놓고 갔는데, 알람이 울려서요. 장시간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으면 센터로 신호가 뜨게끔 설정을 해놓고 갔거든요. 게다가 전화도 안 받으셔서 혹시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아이고, 괜히 미안하게시리. 내가 바쁜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게 된 셈이 되었군.

아닙니다. 어르신. 그런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게, 그저께가 월남 참전 후배인 민 상병 기일이었는데, 묘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날이 되면 현충원에 갔다 오는 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셨군요. 가만, 기일이 그제였다면서 그럼 여태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고 전화를 받았지. 참전 동료였던 손 중위가 죽었다더군.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가 오늘 새벽 발인까지 보고 호국원에서 오는 길이었지. 그나마 하나 남은 전우도 떠나고 남은 사람은 이제 나 하나뿐일세.

어르신의 메마른 눈가에 어느덧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나는 뭐라고 말해드려야 할지 알맞은 위로의 말을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여쭙보았다.

그런데, 민 상병님인가 하는 분은 왜 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 물음에 먼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사이공 전투에서 전사한 민 상병의 유해를 찾지 못해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하던 어르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치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 눈을 감고서.

전쟁터에서 혈육처럼 생각되는 누가 곁에 있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었지. 민 상병이랑은 서로 형, 동생 하며 허물없이 지냈거든. 그때가 갓 스물을 넘겼을 거야. 라는 말로 서두를 뺐다.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르신의 사연은 이랬다. 외동애다가 부모를 일찍 여윈 탓에 단신으로 컸던 그는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했고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아 직업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월남으로 파병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1969년 봄이었다. 보병대대의 중위였던 그가 자원부대의 민 상병을 처음 만난 곳은 월남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도착한 부산항에서였다. 승선하기 전 모든 군인은 손톱, 발톱을 깎아 제출해야 했다. 만일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해 일부분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먼 타국에서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나기도 했지만, 옆에 앉아 발톱을 깎으며 환하게 웃던 민 상병을 보니 이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었다.

몇 살이냐.

열아홉이요. 며칠 있으면 스물 돼요.

아직 어린데, 여긴 왜 왔어?

이제 상병 따고 월남에 가려고 자원했죠.

뭐? 왜?

왜냐뇨? 나라를 위해 군인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 상병의 입에서 나온 그 호기로운 말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나라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가야 하니 마지못한 듯 배에 올랐던 자신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뺨머리에 서서 항구에서 열린 환송회에 회답하듯이 손을 흔들던 민 상병이 무척 대견해 보였다고나 할까.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 배가 월남 봉따우 항구에 도착했다. 한국보다 훨씬 후덥지근한 날씨에 숨이 턱턱 막혔지만, 선상에서 마주한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매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던 항구의 풍경은 도시 반대편 어딘가에 선 지금도 수많은 군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황홀한 광경에 고향 생각이 물씬 났다던 그가 속한 부대는 사이공 외곽으로 이동했다. 임시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부대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처음 느껴 본 열기였다. 그 당시 선발부대는 미연합 군과의 합동작전 중이었고, 그와 민 상병이 포함한 부대는 선발대에 합류되었다.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게릴라 전술이라는 난제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무장한 베트남들이 될 수 있으면 전면전을 피하고 지형을 이용한 전술을 썼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이 말이야.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날렵하고 재빠른 한국군도 그들을 유인하는 작전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지. 그런데, 그 살벌한 전쟁터가 무섭지도 않은지 민 상병은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웠어. 진짜로 용감했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계속되는 공격에 지쳐가던 부대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미국 본토와 유럽 곳곳에서 대대적인 반전 시위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들을 무렵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선선한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로 접어들 시기였는데, 느닷없이 비가 내리던 우기에 비해 자주 청량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작전을 끝낸 부대가 대대 본부로 하루속히 복귀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동하던 길이었다. 너른 평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꽤 서늘했지만 쉬지 않고 이동한 탓에 다들 심한 갈증을 느꼈다. 물이 가득 담겼던 수통은 텅 비어있었다. 다들 인근 늪지대 물로 입이라도 축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일찍부터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삼림은 물론 강과 늪지대까지 오염되었다고, 직접 헬기로 받은 보급품 생수 이외엔 그 어떠한 것도 마시지 말라는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한참 되었다. 그도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었다. 그때, 이마의 땀을 훔치던 민 상병이 말을 건넸다.

김 중위님,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민 상병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던 그도 끝날 줄 모르는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고 얼마 안 돼 일이 터진 거야. 베트남이 심어 놓은 부비트랩이 폭발한 것은 주둔지로 돌아가던 도로에 막 접어들고 있을 때였지. 그때 부대원 중 2명이 죽고 9명이 크게 다쳤지. 민 상병도 그중에 한 명이었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얼굴을, 단 하루도 잊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눈에 선해, 민 상병 얼굴이…. 미친 사람마냥 내지르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달려가 민 상병을 안았지. 손이 마구 떨렸어. 군복을 흠뻑 적시던 검붉은 피를 보자마자 두 손을 민 상병 가슴에 겹쳐 대고 있었는데도 솟구치는 피를 막을 도리가 없었지. 그런데, 자꾸 눈을 감는 거야. 까무룩 정신을 잃어가던 그에게 소리쳤지. 정신 차리라고, 여기 이렇게 있다간 죽는다고. 그랬더니 입가에 열은 웃음을 띠었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로 말하던 그는 그 당시를 생생히 회상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격은 부비트랩에서 끝나지 않았어. 곧바로 이어진 적의 기습적인 총알 세례에 많이들 쓰러졌지. 나도 총을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미군 야전 병원이었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지.

생존한 부대원은 많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선발대 손 중위였다고, 이후 발견된 유해를 고국으로 옮겨왔는데, 민 상병만 못 찾았다고. 가만 돌이켜보면 그를 잊은 듯 지내왔지만 살아오는 내내 빛을 진 것 같이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죽은 민 상병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 같이 살아남았다더라면 좋았을 텐데….

1년 후 다시 자원해 사이공으로 간 것도 어쩌면 민 상병의 유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눈가를 훔치던 어르신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무수한 생사 고비의 순간을 떠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가 한국군 파병의 막바지였던 걸로 기억하네. 정부가 그 뒤론 군인을 보내지 않을 무렵이었거든. 연합군 사이에서 베트남이 사이공 외곽공동묘지에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을 묻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어. 어찌 된 일인지 비석까지 세워주었다는 말을 듣고 물어 물어 거길 찾아갔더니 묘지가 통째로 없어졌더군. 진짜 난감했지. 그 근처는 민간인이 전혀 살지 않은 곳이라 어디 제대로 물어볼 만한 곳도 없었거든.

나는 그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와중에 혹시 눈물이라도 찢끔 흘릴까 봐, 진짜 그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런 안쓰러운 내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났는지 어르신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난 월남에 갔다 온 사람치고 운이 좋은 편에 속했지. 거기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태반이었는데도 살아 돌아왔으니 말이야.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러게요. 저는 군대에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서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어르신은 전쟁터가 무섭진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았냐고? 속으론 무서워서 혼이 났지, 부하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이기고 지는 걸 떠나 전쟁은 너무 참혹한 거라고 말하던 그는 동료 병사의 죽음을 처음 목격했을 때 마구 떨렸던 마음이 점점 담담해졌다고, 어느 순간부터 적을 향해 주저 없이 총을 겨누는 자신이 한없이 낫설고 무섭게 느껴졌다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한동안 싫었다고 했다. 그렇게 어르신과 월남전 무용담에 관한 얘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만 가야겠다며 인사를 하고 나오려던 차에 문득 생각이 난 고엽제 수당에 대해 넌지시 말했다. 그는 예전에 참전용사회장이 말해줘 알고는 있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신청할 엄두가 안 났다고 했다.

왜,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전혀 아니라는 듯 손을 이리저리 내저었다.

어르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살게 된 이유는 기꺼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큰일을, 심지어 어르신은 두 번이나 하셨잖습니까. 그러니 받을 자격이 다분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던 어르신은 말해줘서 고맙다며 내게 조심히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날 밤 나는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 월남전 참전용사 유해봉환을 담당하는 관계자에게 민 상병님의 이름과 나이, 사망한 날짜를 기재한 정보를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웬 오지 않이나며 친구들이 타박했지만,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를 떠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군인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고 그 정도의 수고는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얼마 후 받은 보훈처 회답에선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사업은 진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월남전 용사 유해 송환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하며 국방부와 보훈처는 월남전 한국군 사망자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런 문의를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질 만큼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사이 어르신은 고엽제 후유증 심사에 통과해 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어르신과 알고 지낸 지 열추 3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국가보훈처 보훈 예우 정책관이라고 소개하던 그는 월남전 전사자 묘소조사 및 유해봉환의 임무를 맡고 있다며 몇 해 전 내가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직접 답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잠시 뒤 그의 얘기를 다 들은 나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이 여보세요,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르신, 찾았대요!

아이고, 숨 좀 쉬고 차근히 말해요. 아니, 그리고 난데없이 뭘 찾았다는 건지...

놀라지 마세요, 어르신. 민 상병님 유골이 발견됐대요. 보훈처에서 연락 왔어요. 베트남에서 보낸 유전자감식 결과 민 상병님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짜인가요? 정말로... 으흠,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故 민우식 육군 상병의 유해는 베트남 정부가 창설한 유해발굴단에 의해 호찌민 외곽의 작은 묘지에서 발견되었다. 유골을 감식한 결과 한국군의 유해로 판명되어 지난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통보되었고,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국방부는 즉시 보훈처에 보관된 유가족 DNA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사이공에서 전사한 민 상병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말에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놀라움에 할 말을 잃어버린 듯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을까. 어르신은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틀림없이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리라. 비록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값진 보상 같은 일이 또 있을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그의 유해는 양국 간 협조하에 신원확인을 최종적으로 거쳐 마침내 55년 만에 고국으로 송환되었다. 나는 어르신을 모시고 유해 인수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공항으로 향했다. 월남전 한국 전사자의 유해 11위를 실은 대형 수송기가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은 가운데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예포 11발이 발사되었고 연이어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유가족 대표가 월남 참전용사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자마자 국가 원수가 유해마다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봉환 행사를 마친 유해는 현충원으로 향하는 차량에 옮겨졌다. 어르신은 떠나가는 운구 차량 쪽으로 몸을 돌리며 오른팔을 들어 거수경례했다.

민 상병, 오랫동안 혼자 있게 해서 참으로 미안했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자네,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국 땅을 밟았으니 이제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게나. 훗날, 내 만나러 감세!

그 말을 들으니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올라왔다.

어르신, 혼자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은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자 몰래 눈물을 훔치던 나는 그렇게 그에게 속말을 전했다.

최 주무관, 내가 어떤 말로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지...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여태껏 묵혀두었던 체증이 다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일세.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진짜... 정말로 고맙네.

그 뒤로도 어르신은 내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나는 그저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어르신이 떡 두말이 담긴 상자를 센터로 가져왔다. 나는 고소한 내음이 진동하던 상자를 도로 내밀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드세요. 저희, 요즘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요. 공무원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극구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더니 어르신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떡은 틀니에 붙어.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해? 딱히 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건 공무원 자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늙은 용사를 도와준 최 영서 자네한테 주는 거야. 알겠나? 혹 문제라도 생기면 얘기하게. 내가 책임짐세!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며 내 손에다 다시 떡 상자를 쥐여주곤 황급히 밖으로 나가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인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의 부고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버스를 탔다. 그렇게 1시간여를 달려 정거장에 내려서는 택시로 갈아탔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 나의 기분과는 달리 날씨는 봄기운이 완연했다. 그렇게 도착한 장례식장은 우울함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쓸쓸한 기운만 떠돌 것 같은 빈소는 예상보다 많은 조문객으로 붐볐다. 어르신의 종질이 상주를 맡았고 월남전 참전용사회 회원이 많이들 와 있었다. 그리고 박 주무관을 비롯한 복지센터에서 온 동료도 여럿 보였다. 조문을 마친 나는 어르신의 영정을 쳐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다. 그만 건너편 테이블로 가려는

데, 누군가가 나를 알은체하며 지나갔다. 김 간호사였다. 문상객이 앉은 상으로 음식을 나르고 있는 그녀는 사뭇 놀라 멀뚱히 서 있는 나를 보고 다그치듯이 말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하마터면 어르신이 최 주무관님도 못 보고 가실뻔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직장 동료들 옆에 앉은 내가 더 놀란 것은 박 주무관이 전한 말 때문이었다. 어르신이 통장 하나를 남겼다는 말을 시작으로 여태 받았던 참전 수당과 고엽제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모양이라며 그가 썼다는 메모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직도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약소한 금액이지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용사들과 아직 월남전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를 찾는 일에 꼭 써주으면 좋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중위 김상호.

어르신의 기부금은 독거 및 생활이 어려운 전우를 위해 월남 참전용사회와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 고국의 품으로 보낸다는 유해발굴감식단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크게 몸을 틀어 건너편 제단 위 어르신의 영정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김상호 참전용사의 영정 옆에는 ‘당신의 거룩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여럿 놓여있었다. 나는 어르신에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쯤 민 상병님과 재회해 오랜 회포를 푸셨겠죠? 이젠 두 분이 그곳 하늘나라에서 함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제야 똑바로 앉은 나는 김 간호사가 가져다준 뜨끈한 육개장을 한 손가락 펴 올려 후후하고 입김을 불어 주었다.